

규범적 생활 내에서만, 또 그와 직접으로 일치함으로써만 발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Calvin의 기독교론은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기독교” 활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어 인정하는 활동은, 기구적 교회공동체의 활동과는 별도로 일어난다. 더군다나 교회공동체는 교회 아닌 생활 영역에 대한 배타적 패러다임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들 각각이 창조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근거한 그 자체의 법과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인류를 구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지만, 말씀은, 그 좁은 구원론적 활동과는 전혀 별도로 또 독립적으로 여전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Wisdom)인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 활동은 “교회” 활동으로 바뀌어서는 안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하는 활동이다. “기독교” 교육은 “구속적” 혹은 교회의 신앙고백적 지도와 훈련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계를 다스리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지혜 및 법구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 사역은 기구적 교회의 사역에 국한되거나 축소될 수도 없고 또한 교회가 “세상 안의 기독교 활동”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특별하고도 구원론적으로 규정된 과업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가지는 교회로서의 본질은 교회가 이 과업에 충실한 정도에 따라 유지되어 진다. 칭의/ 화해의 복음 선포가 죄악 많고 화해되지 못한 세상 속에서는 일종의 우선권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선포만이 세상 속에서의 유일한 기독교적 의무인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의해 형성되고 또 그 포교를 위해 있는 교회공동체의 조직과 생활은, 인간존재의 모든 분야에 대한 배타적 규범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인간존재의 전부를 감싸 안으려는 시도로서가 아니라, 또 그것을 교회화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통해 조성하시고 또 그의 안식의 영광을 위해 예정해 놓으신 진정한 창조가 되도록 부르는 말씀의 신실한 사역으로써 세상에 대하여 사역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본 성령의 來臨

권 오 현

I. 서론

1.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1) 동 기

1985년 2월 14일 부산 고신대학 강당에서는 제 39회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있었다. 신학을 졸업하고 강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졸업생들에게 당시의 총회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교를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오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모든 이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신학대학원 졸업식장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의 설교가 이렇다면 “모든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고신 교단의 목회자들의 성령론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 지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신학대학원의 교의학 강의는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84년 가을 학기에 신학대학원 2학년 과정에서 John M. Batteau 교수로부터 성령론 강의를 들었다. Batteau 교수는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에 자신이 전적으로 동의함을 밝히면서 동시에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표시했다. Batteau 교수 자신은 한때 오순절 교인이었고 개혁주의 신앙의 풍성함을 발견하여 개혁주의 교인이 되었다.¹⁾ 그는 개혁신앙을 통해 오순절 교회 교인이었을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바, 성경이 자신에게 열렸고 생명을 주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같은해 11월 24일 역시 같은 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강의하는 N. H. Gootjes 교수는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ism)”이란 강연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Gootjes 교수는 자신은 신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다고 했다.²⁾ (But beforehand I must tell you I had not had the experience the often call: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에 관한 전혀 상반된 듯한 이 두 견해와 체험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한 편의 그릇된 성령관에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같은 내용의 표현이 한 편은 보다 정확한 신학적 용어로, 다른 한 편은 부정확한 용어로 표현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설교에서 요청한 성령의 세례란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혹은 Gootjes 교수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이가 이에 관해서 논의한 것은 부당한 일인가? 교단은 신학과 신앙고백의 동질집단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2) 필요성

1) Batteau 교수의 84년 2학기 고신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pp. 1~2.

2) N. H. Gootjes 교수의 84. 11. 20 신학대학원 이론신학회에서의 특강 영어판 강의안 p. 1

앞 절에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목회자와 신학 교수의 견해 차이에 관한 예를 들었지만 신학대학원생들 간에도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은사 운동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여러 신학대학원생들에게서 발견된다. 84년 가을 학기에 성령론을 주제로 매주마다 모였던 신학대학원의 이론신학회 모임에서 성령의 세례에 관한 발표가 있는 날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은 충분히 상상되어지리라 여긴다. 그 때 발표를 담당했던 어떤 학우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R. A. Torrey의 저서를 인용하여 역설했고³⁾ 집중적인 반대 의견의 공격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 “저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또 그 체험에 어떠한 이름을 붙여야 할런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든지 아니면 성령의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능력으로 입회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만약 성령의 세례나 이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보다 폭 넓게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다면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시대는 성령에 관한 관심의 강도가 높은 만큼 성령론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는 시기이다. 곧 교회를 향하여 성령론에 관한 새로운 조명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시대가 이시대라 하겠다. 물론 이 말은 지난 세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거나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의 신성에 관한 아리우스의 이의 제기가 니케아 신조를 확립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시대는 성령론에 관한 교회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요청의 이면에는 신오순절 운동⁴⁾ (또는 오순절 교회)의 일치된 큰 목소리가 있다. 신오순절주의자들은 모든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연합된 목소리로 성령의 세례를 외친다. 동일한 신학적 용어 “성령의 세례”에 관한 전혀 다른 이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연구할 필요를 느끼게

3) R. A. Torrey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서울: 한국양서, 1983)

4) 신오순절 운동은 이미 교단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註2에서든 Gootjes 교수의 강의안을 참조하라.

한다. 고신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서에 최근 성령에 관한 조항을 독립시켜 넣은 것도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에 관한 이러한 관심과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의 논쟁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교회를 나누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조명 아래 이 진리를 다시 밝히게 하는 것이므로 필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익하다.⁵⁾ 교회의 논쟁은 세상의 논쟁과 달리 타협을 통해 접촉점을 찾지 않고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향과 난점들

1) 방 향

본고에서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다만 성령의 세례와 성도 안에 거하심(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에 관해서만 살펴 보기로 했다. 특별히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비교하여 보다 성경적인 견해를 추구하고자 했다. 본론에서 보다 상세히 밝히겠지만 필자의 견해에 따라서 성령의 세례, 내주, 충만을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내림이라는 한 정의로 묶어 보고자 했다.

2) 난점들

첫째 난점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인격을 연구하는 어려움이다.

둘째는 성경에 표현된 성령에 관한 묘사 자체가 지니는 어려움이다. 이를테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성경의 구절은 심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구절이다. 성령은 스스로 인격이며 또한 하나님이신데 마치 물로 세례

를 주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께서 물을 뿌리거나 끼얹듯이 성령을 뿌리거나 끼얹는단 말인가?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다니, 무한하신 인격이 피조물 속에 어찌 간섭 있을 수 있는가? 이처럼 성령에 관한 표현은 매우 깊은 사고와 그 정확한 해석에 관한 성령 자신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셋째는 성령의 내림이라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표현들이 서로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화란의 신학자 Abraham Kuyper가 그의 저서에서 잘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다.⁶⁾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가?

둘째 거의 19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과 오늘날 믿는 자에게 처음으로 들어 오는 성령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셋째 사도들은 이미 선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 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승천 후 열흘 만에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가?

끝으로 성령 강림과 더불어 나타난 표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상의 난점들 외에도 필자 자신의 무능함이 이 연구를 더욱 힘든 것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구 방법과 가능성

앞 절에서 언급한 성령의 내림에 관한 연구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림은 연구되어야 하며 또 연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하는 바 성령께서 친히 영감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을 우리가 가졌고 성경 해석의 많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성령 자신이 친히 조명하사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가능성과 방법에 관해서 다음의 원칙을 따랐다.

5) Richard B. Gaffin, Jr., *Perspective on Pentecost*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9), p. 9

6) Abraham Kuype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Grand Rapids: Eerdmans, 1979), pp. 112~113

첫째, 우리는 성령의 내림에 관한 결론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성경의 해석은 성경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전통적 개혁주의의 신앙고백들을 참고로 한다.

첫째와 둘째를 방법으로 택한 것은 오직 성경에서만 최종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전체 성경의 유일한 저자이신 고로 서로 모순이 없는 조화 가운데 자신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밝혀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선배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믿으므로 그들이 깨달은 성경의 뜻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아멘일 줄로 믿기 때문이다.

2. 성령의 내림에 관한 제견해

성령의 내림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그러한 견해 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체험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내림에 관한 해석의 차이에 근거한다,

1.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

오순절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교리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이다. 이 사실은 오순절주의자라는 말에서 이미 발견된다. 오순절주의자들의 성령 세례에 관한 견해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번째 축복으로서 (Second Blessing) 성령 세례
둘째, 봉사를 위한 능력을 받는 성령세례.

1) 두번째 축복으로서 성령 세례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구원 받은 후에 임하는 두번째 축복임을 강조한다. 조 용기 목사는 그의 저서 「성령론」에서 “성경에는 중생의 체험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한 예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함으로 성령의 세례가 중생과 구별된 두번째 축

복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을 증명하는 성경의 근거로 예수의 제자들을 들고 나왔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친히 그의 제자 중 가롯 유다 외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증언하였으며 그후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던 것을 말하고 기뻐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들에게 귀신이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 생명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눅 10:20) 말씀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70인의 제자들도 모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을 시인하셨다.”⁷⁾ 조 용기 목사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주장에 대해서 행 8:14~17의 예를 제시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행 8:14~17) 위의 사실은 믿고 세례 받고 중생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된 체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2) 봉사를 위한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

오순절 주의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면 성령의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이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열렬히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서 능력과 생명력이 있는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오순절 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R. A. Torrey 목사의 견해는 이러한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를 잘 대변하고 있다.

7) 조 용기, 성령론(서울:영산출판사, 1983), p. 139.

8) *Ibid.*, p. 139

“성령의 세례는 항상 증거와 봉사에 관련되어 있다.”⁹⁾ (The Baptism with Holy Spirit is always connected with testimony and service.)

“성령의 세례는 죄의 청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봉사를 위한 능력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¹⁰⁾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s not for the purpose of cleaning for sin, but for the purpose of empowering for service.)

3) 요약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를 이상의 두가지에 근거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성령 세례는 반드시 중생시에 신자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 ② 성령이 오실 때는 권능과 충만이 동반된다.
- ③ 성령 세례는 체험적이다.
- ④ 신자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

성령의 오심에 관한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는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같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스토틀과 존 윌부어드가 있다.

1) 성령의 세례는 신분에 관계된다.

존 스토틀은 성령세례와 물세례를 실체와 상징의 관계로 보았다. “물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공개 예식이다. 그것은 죄를 씻어 버리고(행 22:16) 성령을 받는다는 가시적 의미를 지닌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라. 거기에 보면 구원의 그 두 양상은 세례와 관

련이 되어 있다. 물세례는 실체인 성령세례의 상징이다. 이 때문에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을 겁하리요?’(행 10:47, 11:16, 라고 했던 것이다.”¹¹⁾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유형 교회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다.

존 윌부어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이다. 고린도전서 12:13에 의하면 믿는 자의 세례는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다.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모든 신자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교회에 연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주의 학자들은 성령의 세례가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계된다고 한다.

2) 성령의 세례는 중생과 같이 일어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최초의 경험이란 사실은 그 말에 적혀 있는 일곱 개의 성구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면 단 하나 밖에 없는 고전 12:13을 연구해 보면 더욱 확증이 된다.”¹²⁾

이에 대해서는 존 윌부어드도 구원과 성령 세례는 공존한다고 했다.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의 하나는 그것이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세례는 공존하며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¹³⁾

9) R. A. Torrey,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p. 17.

10) *Ibid.*, p. 18.

11) John R. W. Stott, *Baptism & Fulness* (Downer Grove: IVP, 1978), pp. 36~37.

12) *Ibid.*, p. 38

13) 존 윌부어드, *성령*, 이 동원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p. 187.

3) 성령의 세례는 비체험적이다.

성령의 세례는 증생과 동시에 일어나며 그러므로 증생과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 없다. 월부어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의 다른 여러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연구하면 성령충만이 체험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령충만이 체험적인 사건임에 비해 증생과 내주함과 인치심과 세례에 관한 성령의 역사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신비적인 역사다. 아무도 증생의 과정을 의식하며 체험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성령의 세례에 대한 과정을 의식하거나 체험할 수 없다.”¹⁴⁾

4) 요약

이상의 견해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그리스도인은 증생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곧 성령의 세례이다.
- ② 성령의 세례는 사역이 아니라 신분에 관계된다.
- ③ 성령의 세례는 성령충만과 달리 비체험적이다.
- ④ 성령의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3. 차 영배 교수의 견해

차 영배 교수는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총신대학원 교수이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성령론에 관한 존 스토틀의 견해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¹⁵⁾ 이 인한 목사는 그의 저서「오순절과 성령의 세례」에서 차 영배 교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회신학원 개원 첫 학기 (1977년 여름) 주석 신학 강의시간에 총신대학원 차 영배 교수가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다시 주어질 수 있다’

14) *Ibid.*, p. 195

15) 차 영배,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관한 John Stott의 견해비판, 신학지남 82년 겨울호 pp. 5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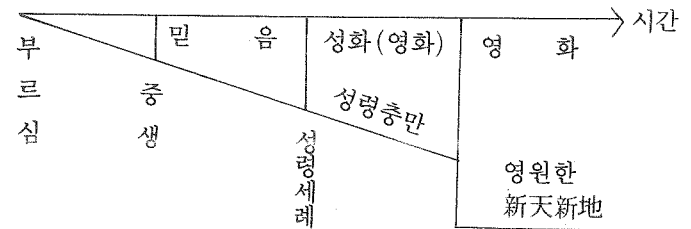
는 단정으로 과거 박 형룡 박사의 신학만 알며 성령의 세례는 증생시 함께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은 전 학생 목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것을 상기할 수 있다.”

1)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분리시킬 수 없다.

차 영배 교수는 존 스토틀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여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요 7:37~39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충만 함을 입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더우기 요 7:37~39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마시는 것이 곧 충만이라는 것을 Stott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것을 충만의 표지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전 12:13의 말씀에 나오는 마심을 충만으로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일어나는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¹⁶⁾

2) 성령의 세례는 증생한 신자가 받는 첫번째 성령충만이다.

“성령세례 (Spirit-baptism)는 단번에 일어나는 구원의 한 서정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지만, 충만을 계속 죽을 때까지, 아니 장차 올 영원한 세계에서도 계속 있어야 할 은사이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연속적이다.



16) *Ibid.*, p. 60.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불가분리의 관리에 놓여 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 충만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면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다고 할 수 없다. 이 양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중략) 처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큰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하고 다음에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충만이라고 구별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별다른 종류의 구원의 서정이 아니고 '시작'과 '계속'의 차이 밖에 없다."

3) 성령세례의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

차 영배 교수는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중생의 시기가 불확실한 것처럼 성령 세례의 시기도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우기 개혁신학계에서 이미 인정된 사실이지만, 중생시기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구원의 서정상 성령세례의 시기도 확정 지을 수 없다. 혹자는 믿은 즉시로, 혹자는 믿은 후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적어도 중생 후에 주 예수를 확실히 믿고 목마르며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대로, 그 받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삼고 다른 것을 무시할 수 없다."¹⁷⁾

4) 요약

- ① 중생과 성령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 ② 중생은 성령세례보다 앞선다.
- ③ 성령의 세례는 내주의 시작이 아니라 충만의 시작이다.
- ④ 성령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온다.

17) *Ibid.*, p. 61에서 전제

18) *Ibid.*, pp. 61~63

4. 견해간의 공통점

1) 오순절 성령의 내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이 견해는 행 2:16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¹⁸⁾ 대체로 이 견해는 수긍을 받고 있으며 또 성경이 지지한다.

2) 오순절 성령의 내림은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의 세례이다.

성령의 세례란 표현은 성경에 모두 일곱번이 나온다. 그중 4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생한 예언에서 발견된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다섯번 째는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그는 그것을 오순절에 적용시켰다.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여섯번 째는 그리스도께서 인용한 요한의 예언을 베드로가 재인용한 것이다. 고넬료의 회심에 적용되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행 11:16) 일곱번째 것은 고전 12:13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19) Ephraem Syro, Grotius, Turretius 등은 요엘의 예언이 요엘 선지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한다.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다. 이상의 구절 가운데 예언과 약속의 형태로 기록된 처음의 다섯 개(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행 1:5)가 행 2:의 성령 강림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한다.

3) 성령의 세례는 한 사람이 한번 이상 받지 않는다.

성령의 세례가 단회적인 것은 마치 물세례를 한번만 베푸는 것과 같다. 그것이 증생시에 받는 것이든지 그 후에 받는 것이든지 모든 학자들이 성령세례가 개인에게 단회적 사건임을 인정한다.

4) 신약의 성령의 내림은 구약 시대와는 다르다.

Kuyper가 이미 그의 저서에서도 밝힌 바대로 성령은 오순절 이전에도 성도들에게 오신 적이 있다.²⁰⁾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오심은 일시적이다. 곧 오셔서 성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이 아니고 왔다가 가셨다. 이에 반해 신약의 오심은 영원한 오심이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서 그의 교회 곧 그의 전인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시51:11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다윗의 말과 롬8:9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바울의 말은 구약 시대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오심에 차이가 있음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다.

5)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이부분 고전 12:13의 경우를 성령이 주시는 세례로 규정하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²¹⁾ 대다수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 세례 요한의 예언이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막 1:8)”

20) Abraham Kuyper, *op. cit.*, p. 112.

21) 아처 트레이, “성령세례고찰”, 신학연구 논문집 성령 1집(서울:영산출판사, 1981), p. 75 “

5. 견해의 차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한 성령의 사역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다루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명칭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 후자는 이렇게 말하고 후자는 저렇게 주장한다. 더우기 혼란스러운 것은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더구나 자신의 성령에 관한 견해를 주장함에 있어서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성령세례의 시기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와 오순절주의자들 간에 뚜렷한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 개혁주의자의 견해가 증생과 성령세례를 동시적 사건으로 보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생하는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오순절주의자들은 증생과 성령의 세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성령세례가 증생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시기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²²⁾ 차 영배 교수는 후자를 따르고 있다.

2) 성령세례가 체험적인가?

성령세례에 관한 동일한 견해 차이가 성령세례가 체험적인가, 아니냐의 문제에도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세례는 확실한 체험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들은 방언과 같은 등의 체험을 동반한 자신의 성령세례의 경험을 간증 한다. 한편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는 성령세례가 증생과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본다. 차 영배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여 성령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방언과 같은 종류의 체험이 성령세례의 직접적 표지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22) 이 인한,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서울:은혜출판사, 1979), pp. 8~14

3) 성령의 세례가 성도에게 성령이 처음 오십인가? 충만히 오십인가?

이 질문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내주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충만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교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차 영배 교수는 분명한 어조로 성령의 세례는 첫번째 성령충만이 라고 주장한다.²³⁾ 한편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는 성령의 세례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의 시작이라고 본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대체로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같은 것으로 볼 뿐 아니라 -이 견해는 차 영배 교수와 일치한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도가 비로소 성령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곧 성령세례가 성령의 내주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곧 성령의 오십, 세례, 충만이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된다.

4) 성령의 세례가 불가항적 사건이므로 구해서는 안되는가? 회개와 순종에 관계한 체험이므로 구해야 하는가?

전통적 개혁주의의 견해는 성령세례가 불가항적 사건으로 성도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²⁴⁾ 이는 마치 구원 받은 성도가 천국 가게 헤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한편 차 영배 교수는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순종과 간구에 의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해야 하고 특히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체험이라고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서로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차 영배 교수의 견해와 유사하다.

3. 성령의 내주와 충만

23) 차 영배, *op. cit.*, p. 60

24) 존 윌버드, *성령*, 이 동원 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84), p. 188

앞장에서 논의한 성령의 세례에 관한 제견해들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곧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내주와 관계된 사건인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과 관계된 체험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성령의 세례가 어느 편에 관계하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성령의 내주

성령론에 있어서 성령의 내주는 대단히 신비한 부분이다. 서론의 연구의 난점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조물 속에 거하신다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자칫하면 범신론적으로 기울어질 위험조차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성령의 내주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데 있다.

1)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성도는 없다.

이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응변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8장 9절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4절~16절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며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성도란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다.

2) 구약 시대는 오순절 이후와 달랐다.

2장의 성령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에서 밝힌대로 구약 시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오순절 이전에는 구원 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었다.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이들에게 오셨다가 가셨다. 이에 관해서는 Rene Pache가 그의 저서 「성령의 인격과 역사」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²⁶

첫째,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브사렐이나(출 31:3) 옷니엘(삿 3:10) 기드온(삿 6:34) 입다(삿 11:29) 등 특별한 사역을 맡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둘째, 성령은 임시로 주어졌고 거두어질 수도 있었다.

삼손과 사울이 그러한 경우이다. (삿 13:25, 16:20; 삼상 10:10, 16:14) 에스겔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경우를 여러번 말하는 데 이것은 성령이 왔다가 가신 것을 뜻한다. (겔 2:1~2, 3:24)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성령을 거두시지 말 것을 간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시 51:11)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는 신약 시대처럼 교회를 그의 처소(몸)로 하여 내주하지 않았었다. 다만 구약에서는 예언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전의 경우는 현재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3) 오순절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날이다.

성탄절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날이라면 오순절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성령의 성탄절이다. 오순절부터 성령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제한을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사실 이러한 존재 양식의 차이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이다. 성령은 영의 상태로 존재하시므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오순절은 성령의 이러한 내주의 사역이 시작된 날이다.²⁶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가 가셨지만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

4) 내주의 양식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 그는 영이신고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는 베드로 안에 거하시면서 동시에 바울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에도 같은 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으셨다. 성령도 그러한가? 그가 오순절에 그의 백성에게로 오셨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늘에는 계시지 않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이다. 곧 자신이 승천하셔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주의를 끄는 말은 나오시는 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고 하셨다. 원문의 동사는 *ἐκπορεύεται*로 *ἐκπορευομαι*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다. 그렇다.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시체가 현재형인 까닭이다.

개혁주의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고백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총회는 325년의 니케아 신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성령의 신성과 함께 성령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을 고백했다.²⁷ 451년 칼케돈 총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인정했다. 이 신조는 후에

26) 박 회천, “오순절 성령”, 신학지남 176호 p. 89

27) Batteau, *op. cit.*, pp. 5~6

589년의 톨레도 회의에서 “그리고 아들로부터(Filioque)” 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동방교회가 갈라져 나가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령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고백이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 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²⁸⁾ 고신 교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하나이다. 성부는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으시고, 어디에서 났거나 나오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²⁹⁾ G. I. 윌리엄슨은 신앙고백서의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 항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³⁰⁾ 고 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형태로 존재하신다. 바꾸어 말하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거나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러한 존재 양식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늘 보좌를 떠나서 땅으로 거처를 옮기심을 뜻한다기 보다는 그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그의 성도에게로 흐르시기 시작한 것을 뜻한다. 곧 오순절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교회 사이를 잇는 은혜의 큰 강물이 개통식을 한 날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의 교회를 향하여 흘러 나오시기 시작했다.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흘러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성령은 문자 그대로 영(루아흐 루아: 바람, *πνεύμα*: 바람)이시기 때문이고 성경이 여러번 성령을 바람과 물로 표현하고 있다. 오순절이 교회를 향한 성령의 흐름이 시작한 날

28) *Ibid.*, p. 6

29) 대한예수교 장로회헌법(부산:아성출판사, 1981), p. 18

30) G. I. 윌리엄슨,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p. 48

이라면 개인적인 내주가 시작되는 날은 중생의 날일 것이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날은 성도의 편에서 보면 이 큰 은혜의 흐름 곧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오심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고 성령의 편에서 보면 거듭난 성도의 전 인격을 관통하여 성령이 흐르시기 시작한 날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은 그의 존재 양식이 흘러 나오심이므로 흐른다는 말이 내주하신다는 말과 같은 의미란 것이다. 마치 강의 존재는 그 자체가 흐름인 것과 같다.

5) 성령의 내주는 체험적인가?

성령의 내주가 성도를 향한 성령의 흐름이라면 성령의 내주는 체험적인가?

이에 관해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신 예수님의 답변이 정곡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언제 내 속에 들어오셨는지 알지 못한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알지 못함과 같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나면 나무들의 흔들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이는 자신의 거듭남을 깨달을 수도 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주의 시작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의 결과이다.³¹⁾

2. 성령의 충만

1) 성령의 충만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성도를 통과하여 흐르고 계신다. 그러나 이 성령이 흐름의 정도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도관으로 말한다면 반쯤 막힌 관도 있고 완전히 뚫린 관도 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라는 장애물이 우리의 전 인격에서 완전

31) 존 월부어드, *op. cit.*, p. 207

히 제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실 뿐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한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³²⁾

이처럼 성령의 충만은 말 그대로 성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되 안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한다.

2) 성령의 충만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사사기 6:23에는 기드온에게 13:25에는 삼손에게 삼상16:13에는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의 충만의 특색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점이다. 이점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순종하고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신약의 성령의 충만이라면 구약의 충만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으시는 충만이다. 사도행전에는 이와 유사한 충만이 보인다. 스테반은 일곱 집사로 선출될 때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구약에서 보이는 이러한 충만을 한번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테반의 경우는 그속에 이미 충만하게 흐르고 계신 성령께서 보다 강하게 역사하심이라는 점이 다르다.

3) 성령의 충만은 체험적이다.

루이스 웨이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성격과 기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신약 성경에는 이 차이가 인정되고 정의 되어져 있다.”³³⁾

성령 충만의 경험은 개인의 상태와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자신의 그릇에 가득 차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각자의 그릇이 다르므로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영적 체험으로 나타난다. 성령충만을 특수한 어떤 체험들 — 이를테면 방언과 같은 — 과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하지만 성령충만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4)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 명령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충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명한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동사 *πληροῦσθε* (충만함을 받으라) 는 현재 명령형이다. 현재시제이므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현재 명령형은 신약에서 이런 시간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³⁴⁾ 성령충만은 지속적인 사역이다.

4. 오순절과 성령의 세례

오순절이 성령의 생일과 같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밝혔다. 오순절로부터 성령은 그의 교회로 흐르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동시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앞장에서는 이 사건을 개인 속에 성령이 내주를 시작하시는 사건이라고 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성령의 흐름 속에 거하는 한 언제나 가능하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막혔던 관의 일부가 마져 열리는 순간 충만히 흐르는 것이다. 충만히 흐르는 성령의 체험 곧 성령의 충만은 중생하는 순간 이후부터는 항상 가능하다.

오순절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날이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 날이란 것 외에도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순절은 그들에게는 최초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날이기도 하

32) 요 7:37~38

33) *Ibid.*, p. 248

34)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 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p. 890

다. 오순절에 성령의 흐름이 시작되는 동시에 그들에게는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미 성령 충만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순절 전의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은 이 충만과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³⁵⁾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혼란을 가져왔던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내림이 단순한 내주의 시작으로서의 성령의 세례만이 아니고 성령이 흐르시기 시작하자마자 충만히 흐르도록 준비된 제자들의 자세 때문에 충만히 흐르셨기 때문이다. 곧 오순절은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성령의 세례인 동시에 성령의 충만이었던 것이다.

4. 요약

1. 성령은 언제 오셨나

오순절에 오셨다.

2. 한번 오신 성령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그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계속 나오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일인 오순절은 반복될 수 없지만 성령은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곧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의 교회 곧 성도를 향해 나오시는 성령과 동의어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므로 나오심이 그의 존재양식이기 때문이다.

3. 성령은 언제 성도에게 오시나?

성도가 중생하는 순간, 곧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성령

35) 제자들의 기도가 성령을 오시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신 성령이 준비된 심령에 충만히 거하셨다는 의미이다.

의 교회를 향한 나오심의 흐름 안에 들어 가는 순간 성령은 성도에게 오신다.

4.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성도가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성령이 자신의 전인격을 흘러 넘치도록 성령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5. 그리스도인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다만 자신 안에 흘러 나오시고 넘쳐나는 형태로 거하시는 성령을 향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워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넘쳐날 것이며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

5. 결론

이상으로 성령의 내림이 어떠한 형태로 성도에게 임하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오순절로부터 그의 교회를 향해 나오시기 시작한 성령은 지금도 그의 교회 위에, 안에 흘러 넘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막지 않는다면 성령은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생수의 샘으로 넘쳐날 것이다. 오순절에 나타난 표적들에 관해서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가능한 것일 따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자신이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교회로 보내심을 받고 지금도 우리에게로 오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 설교에서의 성령의 세례에 관한 언급은 그 표현이 보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표현될 때 성령의 충만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학대학원 3년)

참 고 문 헌

- 1) 박 회천, "오 순절 성령" 「신학지남」 제44권 1집, 1977.
- 2) 아처트레이, "성령세례고찰" 「성령」 1집, 서울 : 영산출판사, 1983.
- 3) 신 동혁, 「성령론」, 서울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9.
- 4) 이 인한, 「오순절과 성령세례」, 서울 : 은혜출판사, 1979.
- 5) 조 용기, 「성령론」, 서울 : 신망애사, 1971.
- 6) 차 영배, "성령의 직접적 사역과 은혜의 수단" 「성령」 3집, 1983.
"성령의 세례와 중만에 관한 John Stott의 견해 비판" 「신학지남」 49권 4집, 1982.
- 7) 총회 헌법 수정 위원회 편, 「헌법」, 부산 : 아성출판사, 1985.
- 8) Rache Rene, 「성령의 인격과 역사」, 정 학봉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78.
- 9) Torrey, R. A.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서울 : 한국 양서, 1980.
- 10) Walroord. J. F., 「성령」, 이 동원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11) Williamson, G. I.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 개혁 주의 신행협회, 1980.
- 12) Kuyper. A. 「The work of the Holy Sprit」 Grand Rapid: Eerdman, 1979.
- 13) Stott. J. R. W. 「Baptism & Fullness」 Downer Grove: I. v. p., 1978.
- 14) Gootjes. N. H. 「Neo-Pentecostalism」 1984. 11. 20. 강의안
- 15) Batteau. J. M. 「구원론 및 성령론」 1984, 2 학기 고신대학원 강의안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교회론

고 수 영

I. 서 론

칼빈主義 신학자 팩커(J. I. Packer)가指摘한 바와 같이, 오늘날 신학적 관심이 가장 集中된 두 가지 분야는 교회론과 성경 해석학 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찬 물결을 타고 온 교회론은 教會史上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문제)로 취급되어지고 있다.¹⁾ 이처럼 교회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思想史에 있어서 교회는 별로 신학적인 관심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²⁾ 더구나 급속도로 부흥한 한국 교회에서 마저도, 이처럼 중요한 교회론이 소홀히 취급되어진 듯하며,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WCC의 영향으로 한국

1) 김의환, 복음과 역사(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p. 188.

2) Collin W. Williams, *The Church*, 이 계준역(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73), p. 7